

이오덕 권장생 하이타니 겐지로의 삼과 책들

아이처럼 살다



온 삶을 아이처럼 살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아이들과 시를 쓰고,
그래서 아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린 지금,
그래도 아이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을 건넵니다.





그림과 사진을 허락해 주신 분 권문희, 김동성, 김민정, 김병하, 김세현, 김종도, 김환영, 류우중, 박경진, 박기범, 서진선, 신가영, 신혜원, 유승배, 윤정주, 이철수, 이혜란, 정승각, 정승희, 정호선, 최종규, 허구, 초 신타, 츠보야 레이코
 도움 주신 출판사 다우출판사, 단비출판사, 바오로딸, 분도출판사
 도서 목록 작성에 자문해 주신 분 구자행, 원종찬, 이기영, 이상석, 이송희, 탁동철, 기시모토 신이치
 참고한 책 《권정생의 삶과 문학》-원종찬, 《이오덕,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이주영, 《작은 사람 권정생》-이기영

- 전시회와 강연회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목록과 화보집에 대한 신청과 문의는 양철북 출판사(02-335-6407)로 하면 됩니다.
- 목록과 화보는 길벗어린이(www.gilbutkid.co.kr), 양철북(cafe.daum.net/tindrum), 창비(www.changbi.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펴낸 날 2015년 4월 6일

글 이혜숙, 조재은 디자인 신병근, 윤소연 자료 정리 서유미

함께 만든 출판사 길벗어린이, 굴렁쇠, 닛온산, 녹색평론사, 논장, 보리, 비룡소, 산치림, 산하, 삼인, 양철북, 우리교육, 웅진주니어, 지식산업사, 창비, 한길사

차례

여는 글 - 1

‘일하는 아이들’의 이오덕 - 4

이오덕이 쓴 책들 - 16

강아지 똥, 권정생 - 22

권정생이 쓴 책들 - 34

태양의 아이, 하이타니 겐지로 - 42

하이타니 겐지로가 쓴 책들 - 54

이오덕·권정생·하이타니 겐지로가 펴낸 책 - 59

전시회 안내 - 63

강연회와 이야기 마당 안내 - 64



‘일하는 아이들’의 이오덕



온 삶을 아이들과 함께한 사람.
아이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란 사람.
‘자기 삶은 모든 사람의 삶에 이어져야 한다’는 시인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 사람, 이오덕.

어디론지 가고 싶어

삐익~ 차 소리가 들린다.
벌떡 일어나 정거장으로 가면
대합실(待合室)에는
보통이 인 아낙네, 보따리 든 색시
그 밖에 똑같이 얼굴이 누우런 사람들이
다투어 표를 사고 있다.

시계를 보니 오(五) 분 전
몹시도 가 버리고 싶구나!
여행증도 차비도 없는데
어디론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에
멀리 멀리 떠나 버리고 싶구나!

오늘 저녁엔 하숙비도 못 주고
밥 먹으러 집에 갈 수도 없고
어제는 수업료를 독촉하면서
눈물 흘리는 학생을 붙잡고
같이 울고 싶은 마음을 참았지만
나보다 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약한 자여, 이 어둔 하늘 밑에
나는 질식하겠구나!

삐익~ 또다시 차 소리가 난다.
아무도 없는 정거장을 나와서
터벅터벅 나는 걸어가자.
어디론지 자꾸 걸어가자!

1953. 7.



1. 《암굴왕》을 읽던 어린 시절(1925~1943)

이오덕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공부하는 지식인이었고 어머니는 소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이오덕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화목교회 주일학교에서 '고향의 봄' '반달' 같은 노래를 배웠고 책에 굶주려 친구가 빌려 준 《암굴왕(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밤새워 읽기도 했다.

“저녁을 먹고 호롱불을 켜 때가 조금 전인 것 같은데…… 나는 책 속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1 1939년 화목공림상수학교 15회 졸업식.
앞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2 <경향신문> 1990. 5. 5

소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학교 갈 마음도 나지 않아 농사일 거들며 혼자서 공부했다. 1941년 영덕공립실수학교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뛰어나 졸업한 뒤 군청 직원으로 특채되었다.



3 영덕공림농업실수학교 시절
4 영덕 군청 시절



2. 열아홉 살에 교사가 되어(1944~1986)

출석부

출석부에 또 하나/ 붉은 줄을 긋는다./ 수업료를 안 가져온다고 꾸중당한 아이./
교무실에 불려와 울던 아이./ (졸임) /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지계를 지고 산을 넘고
있을까?/ 오늘 아침엔 따스한 죽이라도 배불리 먹었을까?/ (졸임) / 이제 시업(첫
수업시간)종이 치는데, 종소리가 울려오는데./ 출석부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면/
나는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1955. 11. 23)

이오덕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교사가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어 독학으로 공부해 1944년 2월에 구제 3종 교원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일제의 군대식 교육에 힘들어했다. 해방이 된 뒤에도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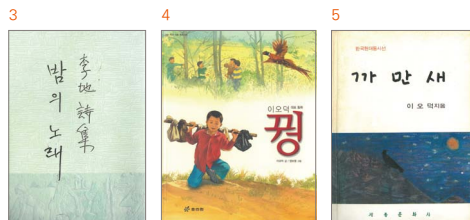
1 1958년 경북 상주군 공검초등학교 졸업 사진. 앞줄
이오덕, 남학생 첫째 줄 가운데 큰아들 정우. 이때부터 이오덕은
글짓기를 중시에 두고 가르쳤다.
2 1979년 안동 대성초등학교에서
3 청리초등학교 아이들 글과 그림을 엮어 1998년에 펴낸 책
4 1996년, 청리초등학교 졸업생들과 무너미에서

3. 아동문학가로 내디딘 첫발(1955)

진달래

이즈러진 초가집들이 깔려 있는 골짜기면/ 나무꾼의 슬픈 산타령이 울리는 고개이면/
너는 어디든지 피었었다.// 진달래야/ 너는 그리도 이 땅이 좋더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혈벗은 강산이/ 그리도 좋더냐?// (줄임)
그래도 너는 해마다/ 보리고개 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갈 때/ 배가 고파
비탈길을 넘어질 뻔하면서/ 두 손으로 너를 마구 따 먹는 게 좋았더냐?//
진달래야/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차라리 시들어지는/ 네 마음, 나같이 약하면서도/
약하면서도……

1955년, 이오덕은 이지라는 필명으로 이원수가 펴내던 <소년세계>에 동시 '진달래'로
등단했다. 1971년에는 단편 동화 '핑'이 <동아일보>에, 수필 '포플러'가 <한국일보>에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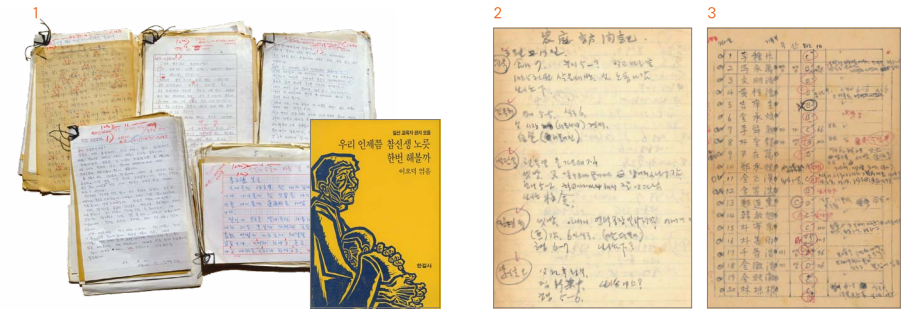
- 1 1974년 이원수와 태종대에서. 1954년 1월, 이오덕은 한국아동문학가협회를 만드는 데 함께했다. 이때 처음 이원수를 만나 평생 스승으로 섬겼다.
- 2 <소년세계> 3월호 표지와 '진달래' 시
- 3 이지 시선집 <밤의 노래>, 이오덕이 손수 만든 시집이다.
- 4 1971년에 쓴 단편 동화를 2005년에 효리원에서 출판했다.
- 5 1974년에 펴낸 동시집

4.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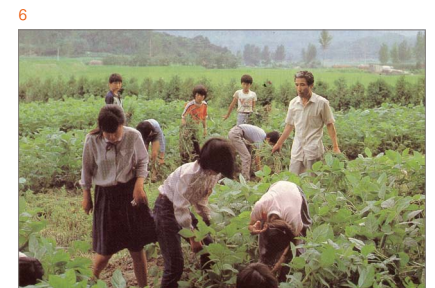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나눠 주라는 우유 가루는 선생들이 자루째 가져가 버리고 아이들을 부려서
집안일을 시키는 선생도 있었다. 기성회비를 못 냈다고 아이를 집으로 쫓아 보내기도 했다.
이오덕은 평교사로 아이들 곁에 있기 위해 교감 발령을 받은 뒤 교사 강등 청원서를 낸
적도 있다. 이오덕 교육 철학의 바탕은 아이들과 함께한 삶이다.

“한밤중에 일어나 이 일기를 쓴다. 쓰지 않고는 잠이 안 올 것 같다. 양심과 도덕심을
잃어버린 교육자들한테 배우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엾고 억울하다.(1964. 6. 3)”

“두고두고 생각해 보자.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세계에
과고들어 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1962. 9. 21)”



- 1 교사들이 이오덕에게 보낸 편지들. 이 편지를 모아 1986년에 <우리 언제쯤 참선생 노릇 한번 해 볼까>를 펴냈다.
- 2 가정방문 일지
- 3 아이들 성적과 생활 모습을 기록해 두었다.
- 4 1977년에 펴낸 교육 수필집
- 5 1978년에 펴낸 교육 수필집
- 6 1984년 상주 대서초등학교 뒷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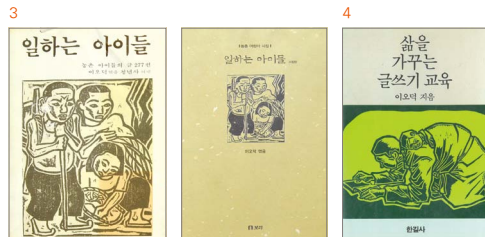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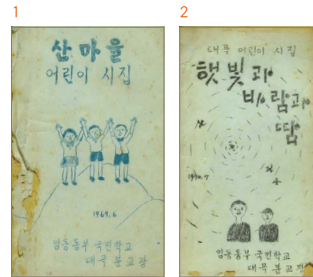
5. 아이들한테서 찾은 ‘글쓰기 교육’

“두 아이의 일기는 참 좋았다. 거기서 나는 많은 것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새로운 발견이란, 시를 모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를 통해 시를 알게 하는 방법이다. 두 아이가 다 산문이라고 쓴 것이, 절실한 정감을 호소하여 글줄도 감정의 파동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끌어 썼기에 훌륭한 생활 시, 또는 생활 서사시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귀한 발견을 한 것이 기뻐고, 이런 아이들을 찾아내어 특별 지도를 해 보리라 생각했던 것이다.(1963. 5. 13)”

“어른들은 그림을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관념적으로 개념적인 것을 그리고 쓰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구체적인 것, 현재 살아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시의 문제도 이와 같다. 동시란 것은 어른들의 관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이들의 시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생활의 표현이어야 하고, 소박하고 현실적인 감동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다.(1963. 6. 8)”

이오덕은 아이들이 하는 말, 글 한 줄, 그림 한 장 허투루 보지 않았다. 자기 말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것, 이오덕의 ‘글쓰기 교육’이다. 그 시절 이오덕이 만난 아이들은 모두 농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었다.

- 1 1969년 6월에 엮은 안동 대곡분교 아이들 시집
- 2 1970년 7월에 엮은 안동 대곡분교 아이들 시집
- 3 안동 대곡분교와 상주 청리초등학교 아이들 시를 중심으로 1978년에 펴냈다.
- 4 1984년에 펴낸 글쓰기 교육 이론서



소 먹이기

안동 대곡분교 3학년 김옥동

소야,
여게 풀 많다.
여기서 먹어라.
소는 그래도 안 온다.
소는 지 마음대로 한다.
소는 부엉이 소리가 나도
겁도 안 나는 게다.
사람 있는 데 안 온다.

6. 평론가의 길, 아동문학 운동(1976)

“나는 본디 동시와 동화를 쓰고 있었는데, 시와 동화보다 더 급한 것이 평론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먼저 우리 동시의 정체(停滯)를 가져온 유희성을 지적하고, 동화의 전근대적 귀족성과 작가들의 탈피 못 한 식민지 근성을 비판했다. 많은 문인들이 나를 적대시했고, 더러는 내가 쓴 글에 반론을 펴기도 했지만 나는 조금도 굽힘이 없이 모든 거짓스러움과 불순한 것을 밝히려 애썼다.(1979, 《내가 걷는 길》에서)”

- 1 아동문학 세미나에서 권정생과 함께. 이오덕은 1973년 권정생을 찾아가 만났다. 그 뒤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누고 뜻을 함께한 동무로 지냈다.
- 2 1976년 '부정의 동시'로 제2회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다.
- 3 1977년에 펴낸 아동문학 평론집이다. 이원수는 책 머리말에서 "아동문학 50년의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본격적인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혼돈 상태에 있는 아동문학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 4 1985년에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인 모임을 만들고 부정기 간행물 <살아 있는 아동문학>, <지붕 없는 가게>를 엮어서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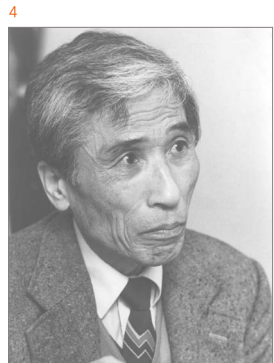


7. 학교를 떠나 세상 속으로(1986~1999)

“부끄러운 교육자 생활을 장사 지내고, 내일부터 새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아야겠구나 싶다. 그렇다. 이제 나는 좀 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자유인, 참사람이 되자!(1986. 2. 26)”

“내 꿈은 저 아이들이다./ 마구 짓밟히고 쥐어뜯기고 뿌리 뽑히는 풀 같은 어린 생명들/ 그들을 살리는 일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어찌자고 잠은 안 와 들떠 있는가?/ 어린애같이!(‘잠 못 드는 밤-퇴임한 날’에서. 1986. 2. 27)

42년 동안 몸담았던 학교를 떠나 1986년 3월 과천으로 이사했다. 퇴직 전부터 여러 단체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냈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함께했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우리 말 살리는 겨레 모임은 이오덕이 중심이 되거나 이오덕의 영향을 받아 만든 단체들이다. 전국초등민주교육협의회를 만드는 데도 적극 참여하며 전국 곳곳, 교사들이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고 강연을 다녔다.



- 1 1986년 성주군 대서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임했다.
- 2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여름 연수
- 3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회보
- 4 1992년 3월 25일 제15차 〈한겨레신문〉 창간위원회에서.

8. 우리 말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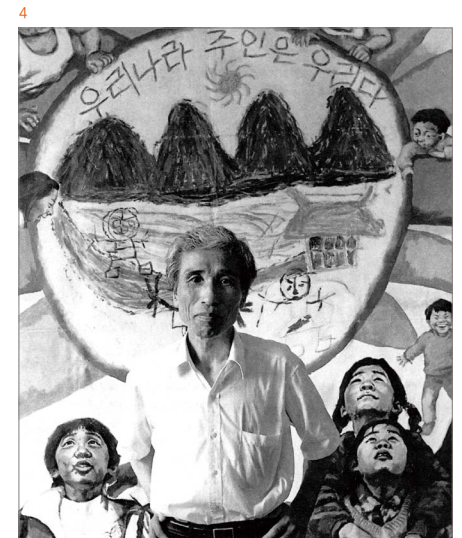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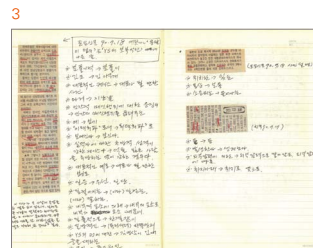
“말과 글, 그리고 의식, 삶 이것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삶이다. 삶→의식→말→글 이렇게 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역행하는 수가 있다. 글→말→의식→삶 이렇게 말이다. 이런 문화의 역행 속에서 사회와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역시 이 역행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말과 글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바로잡고 삶을 바로잡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988. 2. 7)”

“내 생각의 바탕과 뿌리는 민중의 삶이고 민중의 말입니다.(1990. 5. 4)”

이오덕은 아이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게 하려면 바르고 쉬운 말을 써야 한다고 했다. 1993년 우리 말 살리는 모임을 만든 뒤 우리 말 바로잡는 운동을 할 생각을 하면서 어린애같이 가슴이 부풀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우리 말 운동에 온 힘을 다했다.



- 1 1993년에 우리 말 살리는 모임을 만들고 공동대표를 맡아 손수 써서 펴낸 회보와 1998년에 만든 〈우리 말 우리 알〉 회보
- 2 1989년에 〈우리 글 바로 쓰기〉를 펴냈다. 이 책을 고쳐서 1992년에 〈우리 글 바로 쓰기〉(1, 2)로 펴냈고 〈우리 문장 쓰기〉도 펴냈다.
- 3 신문에 잘못 쓰고 있는 말을 찾아내 하나하나 고쳐서 기록해 두었다.
- 4 1994년 과천 우리 말 연구소에서



9. 과천을 떠나 무너미 마을로(1999~2003)

이오덕은 1999년 과천을 떠나 큰아들이 있는 무너미 마을로 갔다. 살구꽃 피면 눈물 흘리고, 대추 밤 줍고, 홍시 따며 행복하다, 고맙다 그랬다. 몸에 병이 찾아오고 이오덕은 자연스레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했다.

“아버진 암이래요.”

“그래? 짐작했다. 울지 마라. 조금도 슬퍼하지 마라.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올 것이 왔을 뿐이다. 나는 조금도 편안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디 생각을 바꿔라.”(2000. 8. 14)

“아직도 오늘 하루 내 인생은 많이 남았다. 누워서 음악을 듣고, 하루 일을 대강 적고, 정우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발 목욕을 하면서 앞으로 서둘러야 할 일을 의논했다. 내 삶의 한평생, 오늘 하루를 끝낸 것이다.”(2000. 8. 19)”

“아침과 저녁때를 다 바느질로 시간을 보냈다. 바느질을 하니까 좀 재미가 나기도 했다. 글 쓰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다.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고, 바느질하는 이런 재미를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빼앗긴 것은 참 섭섭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2002. 12. 8)”



- 1 무너미 집에 있는 서재
- 2 2001년에 펴낸 아동문학 평론집. 무너미에서도 글 쓰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 3 감나무를 바라보며



10. “나는 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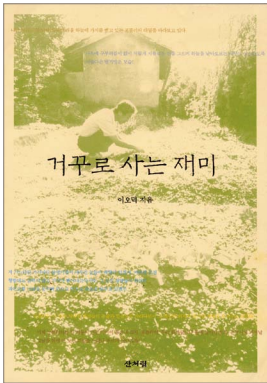
몇 평생 다시 살아나네

밤낮 침대에 누워 있자니
등뼈가 아파서 견딜 수 없다.
그래도 낮에는 정우가 안아서
잠시라도 앉아 있지만
밤에는 누워서 꿈쩍 못 한다.
수건을 등뼈 양쪽 깔아 달라 해서
겨우 견디는데
이번에는 발뒤꿈치조차 아프다.
그래도 꿈쩍 못한다.
이건 아주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산 송장이다.

정말 밤마다 나는 관 속에 들어가
생매장되어 있다가
아침이면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고깃 참 재미있구나.
하루가 새 세상 새 한평생
앞으로 내가 몇 평생 살는지
고깃 참 오래 살게 되었네.(2003. 8. 20)

이오덕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8월 23일까지 일기를 썼고 8월 25일 땅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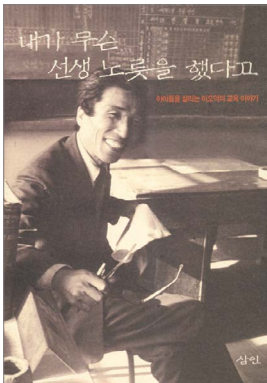




거꾸로 사는 재미

산처럼 | 332쪽 | 10,000원 | 2005년 2월 발행
ISBN 978899006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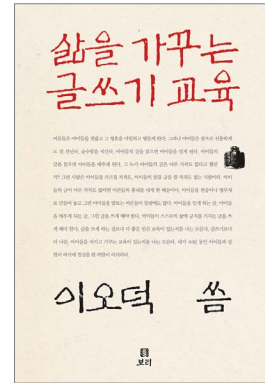
1983년 출간했던 첫 수필집으로, 맞춤법 등을 지금에 맞춰 다시 펴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농촌과 도시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꾸짖고, 말과 글에 대한 어지러움을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실려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큰 스승 이오덕 선생님의 교육관이 잘 드러나 있다. 끝까지 기르는 교육, 아이들이 미워지는 교사에게 주는 글 등, 교육 현장에 대한 예리한 관찰에서 우리나라 따끔한 지적과 격려는 지금 읽어도 깨우치는 바가 크다.



내가 무슨 선생 노릇을 했다고

삼인 | 355쪽 | 12,000원 | 2005년 11월 발행
ISBN 9788991097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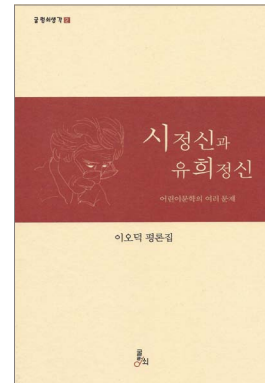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평생 우리 말과 글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며 참교육 운동을 해온 이오덕 선생이 정년을 5년 남기고 군사 정권에 시달리다가 끝내 교직을 그만둔 후 쓴 글들을 모은 책. 제대로 된 교육을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일침을 놓으며, 아이들을 믿는 데에서 시작하는 사람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다하지 못하는 아이들 교육을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 나간다. 또한 아이들에게 삶을 찾아 주는 민주교육·참교육을 위한 교육운동의 의미와 어려웠던 그 과정, 교직에서 쫓겨난 일화 등도 함께 들려준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보리 | 460쪽 | 15,000원 | 2004년 9월 발행
ISBN 978898428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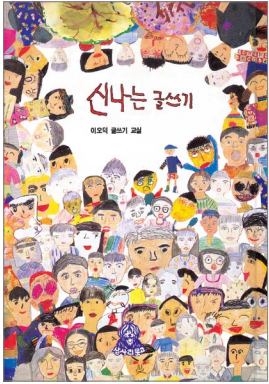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글쓰기 길잡이 책. 잘못된 글짓기 교육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을 갈래별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글감 찾기부터 글 고치기까지, 글쓰기 지도 과정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시정신과 유희정신

굴렁쇠 | 471쪽 | 20,000원 | 2005년 10월 발행
ISBN 9788995104453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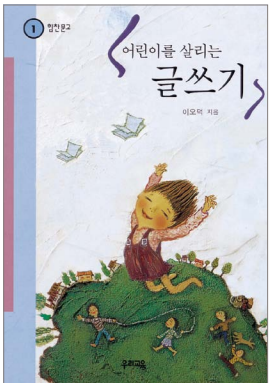
이 평론집은 1977년 창비에서 나와 어린이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2005년 도서출판 굴렁쇠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읽기 편하게 글자도 큼지막하게 편집해 다시 출판했다. 《시정신과 유희정신》은 어린이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동시를 쓰는 사람, 동화를 쓰는 사람, 어린이 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이 평론집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다. 당시 선생님이 지적한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당시 지적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나는 글쓰기

자식산업사 | 270쪽 | 7,000원 | 1993년 4월 발행
ISBN 9788942378013
중앙일보 추천 어린이도서

소년조선일보에 1년여 동안 연재했던 <어머니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글짓기>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가를, 어린이들이 쓴 보기글을 많이 들면서 얘기하고 있는 글쓰기를 위한 훌륭한 길잡이 책. 《글쓰기, 이 좋은 공부》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잘못된 남의 나라 글자말과 말법을 깨끗한 우리 말로 다듬은 개정판.



어린이를 살리는 글쓰기

우리교육 | 유승하 그림 | 272쪽 | 7,000원 | 1996년 8월 발행
ISBN 9788980408016
YWCA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웹진 열린어린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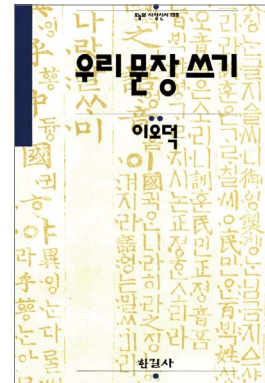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직접 쓴 글을 보기로 들면서 올바른 글쓰기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우리 말 글쓰기 지침서. 평생을 바른 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에 바친 이오덕 선생님이 우리 말을 쓰고 우리 말을 바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이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의 첫걸음임을 알려 준다.



우리 글 바로 쓰기 세트 (전5권)

한길사 | 3,177쪽 | 90,000원 | 2009년 11월 발행
ISBN 978893566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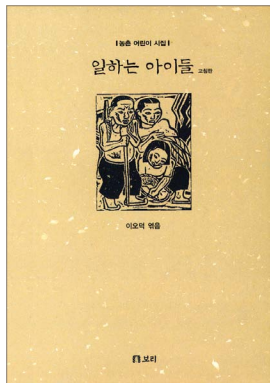
우리 말과 글 살리기에 힘쓴 이오덕 선생의 <우리 글 바로 쓰기> 세트(전5권). 저자는 우리 말과 글이 남의 땅에서 들어온 중국 글자말(한자)과 일본말, 서양말(특히 영어)에 시달려 '삼중고'의 질병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깨끗한 우리 말은 계속 쓰고 우리 말이 될 수 없는 말은 바로잡거나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들은말(외래어)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예를 자세히 들고 있다. 특히 제4권은 한자병용정책, 영어공용어론 반대 등 주로 '외래어와 맞서기'에 대한 글을 모았고, 제5권은 어린이를 위한 살아 있는 글쓰기와 풍부한 사례를 담았다.



우리 문장 쓰기

한길사 | 570쪽 | 20,000원 | 1992년 3월 발행
ISBN 9788935600083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우리 문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책. 1부는 글을 어떻게 보고 어떤 태도로 써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문체에 대한 생각을 쓰고 있다. 3부는 글쓰기 5단계이다. 주제를 정하거나 쓸거리를 잡는 일에서 시작하여 글을 발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글쓰기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그 단계마다 해야 할 일,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해 본다. 4부에서는 글의 갈래를 여덟 가지로 나누어 그 갈래마다 글의 특성, 쓰는 방법 등을 실제 글의 보기를 들어 설명하였다.



일하는 아이들

보리 | 340쪽 | 11,000원 | 2002년 5월 발행

ISBN 9788984281271

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1950년에서 1970년까지 이오덕 선생님이 가르친 농촌 아이들이 쓴 시를 모았다. 들에서 산에서 자란 아이들 시는 자연과 시를 잃어버린 우리 몸과 마음을 맑게 하고 힘이 솟게 만든다. 이 시집은 아이들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일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 살아 있는 글쓰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반가운 책이다. 우리가 숙절없이 잃어버린 아름다운 우리 말과, 가난한 농촌에서 일하고 뛰놀던 아이들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



이오덕 일기 세트 (전5권)

양철북 | 1,936쪽 | 70,000원 | 2013년 6월 발행

ISBN 9788963720913

책다세 추천도서,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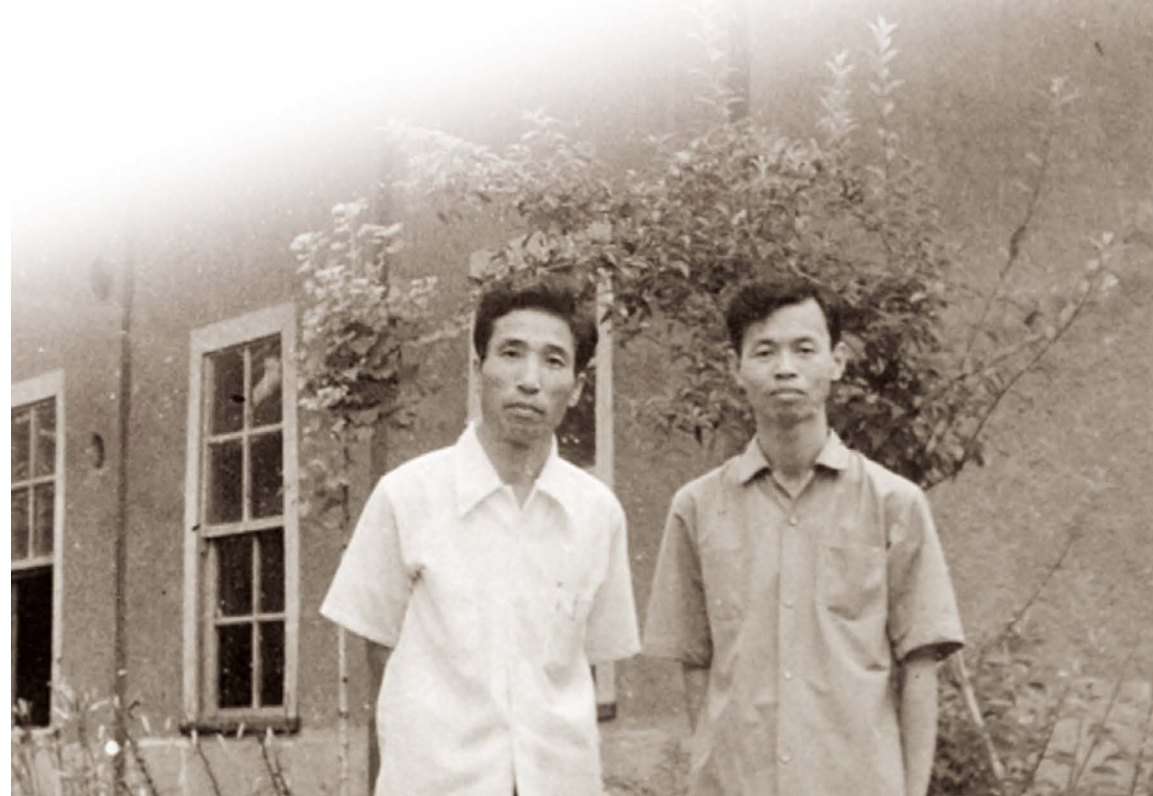
이오덕 선생이 산골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1962년부터 2003년 8월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까지 치열하게 써 내려간 42년의 기록이다. 그 속에는 평생 자신의 생각과 삶을 일치시키려는 한 인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비바람을 견디며 땅에 뿌리박고 사는 거대한 나무처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내면의 생각과 삶을 일치시키려 부단히 노력하는 이오덕 선생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감과 해답을 줄 것이다.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 이오덕과 권정생의 아름다운 편지

양철북 | 근간 | ISBN 9788963721606 | 2015년 5월 6일 출간 예정

권정생과 이오덕은 1973년에 만나서 2003년 이오덕이 떠날 때까지 30년을 함께했다.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막연한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두 사람의 편지를 보면 그 막연함이 절실하게 살아난다. 약값, 연탄값 걱정부터 읽고 있는 책 이야기, 혼자 잠 못 드는 밤에 들었던 생각, 하루하루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성껏 조심스레 다가가, 어느새 함께하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고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다. 특히 세상을 알아가는 젊은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평생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자기 자리에서 되돌아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강아지 똥, 권정생



‘강아지 똥’으로 세상에 온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눈길로 아이들에게 다가간 사람.
아이들의 동무, 권정생.

발 한 뼤기

사람들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발 한 뼤기

논 한 뼤기

그걸 모두

‘내’ 거라고 말한다.



이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 것은 없다.

하느님도

‘내’ 거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다.



아기 종달새의 것도 되고

아기 까마귀의 것도 되고

다람쥐의 것도 되고

한 마리 메뚜기의 것도 되고

발 한 뼤기

돌멩이 하나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두의 것이다.



1. 도쿄 변두리 시부야의 셋집에서 청송 외가로(1937~1946)

“거리 청소부였던 아버지는 쓰레기더미에서 헌책을 가려내어 와서 뒤란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이따금 찾아오는 고물 장수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팔았다. 나는 이 쓰레기 책 속에서 혼자 글자를 익히고 세상을 배웠다.

1946년 해방 이듬해 우리는 조선으로 돌아왔다. 만 8년 6개월 동안 어렵지만 정들어 자라온 땅을 떠난다는 것은 가슴이 쓰리고 서러운 일이었다.”

권정생은 1937년 8월 18일 일본 도쿄 시부야의 헌옷 장삿집 뒷방에서 태어났다. 5남 2녀 가운데 여섯째였다. 열 살이던 1946년에 외가가 있는 청송으로 왔다.

- 1 시부야 골목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가난한 이웃들 이야기를 쓴 작품이다.
- 2 한국에 돌아와서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쓴 게 단편 동화 '쌀 도둑'이다. <개똥이네 놀이터> '빌뱅이 언덕 권정생 할아버지'에 나오는 그림.



2. 6.25전쟁과 가난(1947~1953)

권정생의 아버지는 소작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행상을 다녔다. 권정생은 어머니 대신 밥 짓고 빨래하며 학교를 다녀야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처음 한 것이 나무 장사였고, 다음이 고구마 장사, 담배 장사, 점원 노릇도 했다. 하지만 전쟁으로 돈 가치가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식구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



- 1 일직초등학교 졸업. 권정생은 열두 살 때 아홉 살 동생과 함께 1학년으로 입학해 1953년에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다. 뒤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 2·3·4 권정생이 겪은 전쟁 이야기를 쓴 작품들이다. 이오덕은 <초가집이 있던 마을>을 읽고 나서 "6.25를 다룬 아동문학 작품으로서 처음일 것 같고, 6.25를 이렇게 정확하게 본 것은 일반 소설에서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 5 권정생은 중학교에 가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이를 동안 꼬박 일해서 손수 지계를 만들어 나무 장사를 했다.



3. 부산, 기훈이와 명자를 만나다(1955, 19세)

부산에 있는 재봉기 가게에서 여름부터 점원으로 일했는데,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오기훈과 식모살이를 하는 최명자를 만났다. 기훈이와 함께 밤길을 걸으며 '군세어라 금순이'를 목이 터져라 불렀고 <학원>, <새벗>, <죄와 별>을 빌려 보며 밤을 새웠다. 늦은 여름 오기훈이 자살을 했고 권정생은 노래 부르는 것도, 책 읽는 것도, 시를 쓰는 일도 모두 그만두었다. 명자는 서울로 떠나 웃음을 꺾는 여자가 되었다.

- 1 동화 '갑돌이와 갑순이'는 기훈이와 명자를 생각하며 쓴 동화인데, 지금은 '별뚱별'로 나와 있다. <사과나무 밑 달님>에 나오는 그림.
2·3 부산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시절, 건강이 나빠져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다. <개똥이네 놀이터> '빌뱅이 언덕 권정생 할아버지'에 나오는 그림.



4. 권정생의 십자가, 결핵(1956, 20세)

“결핵에 걸리고 말았다. 열과 기침에 시달리면서도 아무에게도 아프다는 눈치를 보이지 않으며 1년을 버텼다. 밤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고 밤중에 깨어 보면 식은땀이 흘렀다. 폐결핵에 늑막염이 겹쳤다.”

결핵 1

길 가다가도 퍼질러 앉으면
앉은 채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엉덩이
차라리 그대로 쭉쭉 빠져 들어가
천길 만길 지옥 속이라도 빠져들고 싶어라.

- 1 강아지 똥
2 아궁이에 빠져 숨털이 다 타 버린 병아리, <별뚱별>에 나오는 배때기
3 서른 살이 넘었는데도 모든 게 서툰 용구 삼촌



권정생 작품은 어리고 아픈 생명들의 이야기이다. 전쟁과 가난으로 얻은 결핵, 결국 그 병으로 평생 아픈 몸으로 살아야 했다. 권정생은 지금 배고픈 사람, 추위에 얼어 죽어 가는 사람, 병으로 괴로워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절실한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권정생은 아프고 약한 목숨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권정생의 삶은 작품 속 인물들로 살아났다.

5.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권정생의 어머니는 1957년 부산으로 찾아가 앓고 있던 아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마다 뒤꼍 뽕나무 아래서 기도를 하고 산으로 들로 약초 캐러 다니고 메뚜기, 뱀, 개구리를 잡아와 아들 병구완을 했다. 둘째 목생을 먼저 보내고 또 다른 아들 정생을 놓칠까 봐 곳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몸져누운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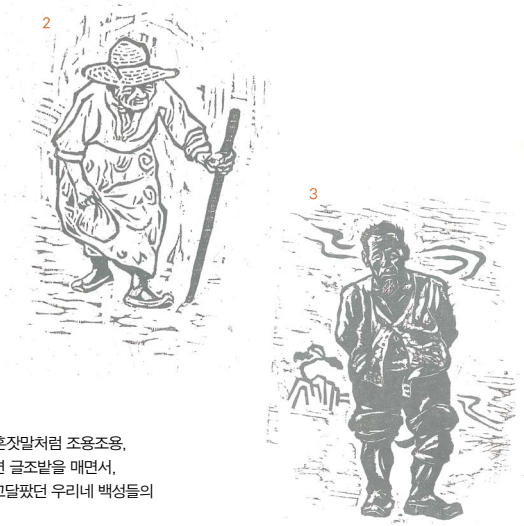


1 권정생 어머니(인귀순)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등을 돌린 채 혼잣말처럼 조용조용, 산에 가면 산나물을 뜯으면서, 인동꽃을 따면서, 밭에 가면 글조밭을 매면서, 집에서는 물레 실을 자으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서럽고 고달팠던 우리네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사투리로 들려주셨습니다."

권정생은 자장이 대신 어머니의 구슬픈 타령을 들으며 자랐고,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소설 《한티재 하늘》로 세상에 나왔다.

2·3·4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에 나오는 백성들 그림.



6.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1965, 29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권정생은 집을 나와 석 달 남짓 대구, 김천, 문경, 점촌을 떠돌았다. 구걸을 할 바엔 철저히 거지가 되자고 작정하고 수중에 남아 있던 60원으로 깡통 하나와 성냥 한 꺾을 샀다.

딸기밭

새빨간 딸기밭이
보였습니다.
고꾸라지듯 달려가 보니
딸기밭은 벌써
거둠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알맹이보다 더 샛빨간
딸기 꼭지들이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불효자에겐
보아스가 릫을 위해 남겨 줬던
그런 이삭조차 없었습니다.
건너 산
바위 벼랑 위로
흘러가는 구름이
자꾸 눈앞을 어지럽힙니다.
어머니
배가 곱습니다.



황소 아저씨가 생쥐에게 기꺼이 내준 여물통.
권정생은 깡통에 밥을 꼭꼭 눌러 담아 준
이웃들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했다.

"나는 이 3개월 동안을 일생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인생 체험으로 소중히 마음속에 남을 것으로 믿고 있다. 들판에 앉아서 읽었던 성경은 생생하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나는 몇 번이나 죽음과의 싸움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났고, 아모스를, 엘리야를,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그리고 세례 요한을, 사도 바울을 만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 나의 주 예수님을 사귄 수 있었던 기간이기도 했다."

7 일직예배당 문간방 (1968~1983)

“1967년 동생이 결혼을 해서 따로 헤어져 갔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는 자유로운 몸이었다.

교회 문간방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1968년이였다. 서향으로 지어진 예배당 부속 건물의 토담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다. 외풍이 심해 겨울엔 귀에 동상이 걸렸다가 봄이 되면 낫곤 했다. 그래도 그 조그만 방은 글을 쓸 수 있고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1



- 1 예배당 앞에서 찍은 사진
- 2 1987년 여름 성경학교에서
- 3 권정생은 일직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마다 종을 치기도 했다. 추운 겨울이면 겨드랑이 밑으로 기어들어 오는 생쥐랑 동무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

2



3



8. “거지가 글을 썼습니다”(1969)

“열에 들뜬 몸으로 써 나갔다. 아침에 보리쌀 두 홑을 냄비에 끓여 손가락으로 세 등분을 금 그어 놓고 저녁까지 나눠 먹었다. ‘강아지 똥’은 50일 간의 고통 끝에 완성되었다.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내가 쓰는 동화는 차라리 그냥 ‘이야기’라 했으면 싶다. 서러운 사람에게 남이 들려주는 서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 위안이 되고 그것이 조그만 희망으로까지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슴에 맺힌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들려주고 싶듯이 그렇게 동화를 썼는지도 모른다.”

1



- 1 1969년 <기독교교육> 제1회 기독교아동문학상에 '강아지 똥'이 당선되었고 1974년에 동화집으로 출판되었다.
- 2 197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무명저고리와 엄마'가 당선. 이때 신문에 실린 그림이다. "나의 어머니이자, 5천 만 우리 민족의 슬픈 어머니의 이야기를 꼭 적어 보고 싶습니다. 저승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함께 기뻐해 주세요."
- 3 1975년 '금복이네 자두나무'로 제1회 한국아동문학상을 받았다.

3



9. 빌뱅이 언덕(1983~2007)

“이사 온 집이 참 좋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외로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생각에 젖을 수 있어요(1983. 4. 11, 이오덕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사 온 집에 살아 보니 좋은 게 많다. 아침에 일어나 개울에서 세수하는 것, 세수하고 나서 뒷산에 올라가는 것이다. 요사이는 안개가 끼고 그리고 해가 뜨면 그 안개 사이로 나타나는 산국화 꽃이 너무 아름답다. 연보라의 쓸쓸한 빛깔이 후미진 골짜기 기슭으로 무덕무덕 피어 있는 모습은 가슴이 저미도록 아름답다(1983. 10. 5, 이현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빌뱅이 언덕

하늘이 좋아라
노을이 좋아라

해거름 잔솔밭 산허리에
기옥이네 송아지 울음소리

절레 텅굴에 하얀 꽃도
떡갈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하늘이 좋아라
해 질 녘이면 더욱 좋아라(1986 <안동문학>에서)



1 동네 청년들이 지어 준 여덟 평짜리 흙집. 1986년 3월 27일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호롱불을 밝히고 살았다.

2,3 권정생이 아끼는 땃덕이와 함께

4 빌뱅이 언덕으로 이사 가서 꽃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오소리네 집 꽃밭>을 썼다.



10. “용감하게 죽겠다”

유연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연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 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 주기 바란다.

유연장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젠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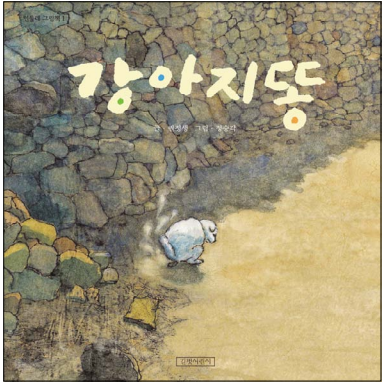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별별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굴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 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2005. 5. 1, 쓴 사람 권정생, 유서 가운데서).

“정호경 신부님, 마지막 글입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월 12일부터 갑자기 콩팥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뭉뚱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1초도 참기 힘들어 끝이 났으면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모두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 달라고요(2007. 3. 30, 오후 6시 10분).”

권정생은 정호경 신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5월 17일 ‘어머니 사시는 그 먼 나라’로 떠났다.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 정승각 그림 | 32쪽 | 11,000원 | 2005년 4월 발행
ISBN 9788986621136
서울특별시 교육청 추천도서, 경상북도교육청 추천도서,
환경책 큰잔치 2003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선정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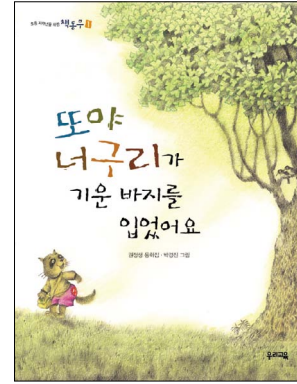
어느 골목 담 한구석의 강아지똥. 모두 더럽다고 피하기만 하는데……. 어느 날, 강아지똥은 민들레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민들레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봄비 내리는 어느 날, 강아지똥은 민들레 뿌리로 스며들어 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 1996년 초판 출간 이후 줄곧 독자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국내 창작 그림책 최초로 100만부가 판매된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이다.



강아지와 염소 새끼

침비 | 김병하 그림 | 48쪽 | 12,000원 | 2014년 9월 발행
ISBN 978893645453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11월의 읽을 만한 책,
<열린어린이> 선정 좋은 그림책,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개구쟁이 강아지와 새침테기 새끼 염소가 아옹다옹하다가 어느새 친구가 되어 뛰노는 모습이 사랑스럽게 그려진 그림책. 권정생이 소년 시절 쓴 시에는 친근한 말맛과 소박한 정서가 잘 살아 있다. 화가 김병하는 시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여 단순 명료하면서도 명랑한 동심 세계를 펼쳐 보였다. 귀엽고 생기 있는 캐릭터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에서 어린 독자들은 재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우리교육 | 박경진 그림 | 102쪽 | 8,000원 | 2000년 12월 발행
ISBN 9788980401000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이 달의 책',
열린어린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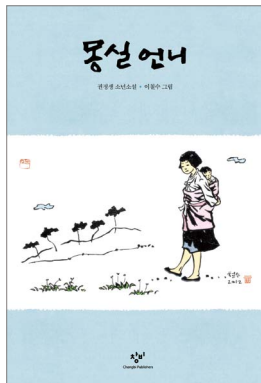
권정생 선생님이 펴낸 창작 동화집.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변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해 주며, 소외된 이웃들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 여섯 편이 실려 있다. 이야기의 감동을 한껏 더해 주는 고운 삽화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들이 맑고 고운 마음씨를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애정이 책 곳곳에서 물씬 풍겨 나오는 책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꼭 읽어 보면 좋겠다.



랑랑별 때때롱

보리 | 정승희 그림 | 200쪽 | 12,000원 | 2008년 4월 발행
ISBN 9788984285422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시사IN 선정 2008 올해의 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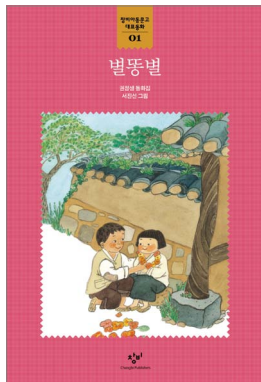
권정생 선생님이 남긴 마지막 동화. 아픈 몸으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동심과 해학, 환상이 어우러진 동화로 풀어냈다. 가난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랑랑별의 모습 속에 그 답이 있다.



몽실 언니

창비 | 이철수 그림 | 296쪽 | 10,000원 | 2012년 4월 발행
ISBN 9788936433895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책교실 권장도서, 문화공보부 추천도서

권정생의 대표작. 해방과 한국전쟁, 극심한 이념 대립 등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은 작은 어린이의 사실적인 기록이면서, 처참한 가난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이웃과 세상을 감싸 안은 한 인간의 위대한 성장기이다. 1984년 초판 출간 이래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두루 읽히고 사랑받으면서 한국 아동문학의 명실상부한 고전이 되었다.



별똥별

창비 | 서진선 그림 | 164쪽 | 10,000원 | 2013년 2월 발행
ISBN 9788936461218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권장도서

한국 아동문학의 별, 권정생 동화집. 가장 하찮은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을 낳는다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 주는 권정생 단편동화의 대표작 <강아지똥>을 비롯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한(恨)을 응축하고 승화한 <무명 저고리와 엄마>, 시궁창도 달나라도 슬픔도 이별도 있어야 세상 이야기라는, 권정생 이야기관을 오롯이 보여 주는 <똥배가 보고 온 달나라>, 권정생의 생명관을 드러내는 <빼빼기>, 바라 마지않던 통일이 잠시나마 이루어지는 시공간이 펼쳐지는 <바닷가 아이들> 등 모두 일곱 편의 이야기를 모아 한데 엮었다.



빌뱅이 언덕

창비 | 364쪽 | 13,000원 | 2012년 5월 발행 | ISBN 9788936472160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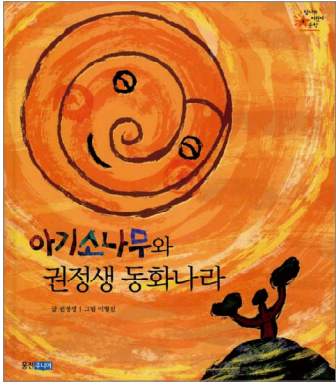
권정생 선생님 작고 5주기를 맞아 출간된 산문집으로, 등단 이후 197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발표한 주요 산문들을 새롭게 찾아내고, 절판 도서에 실린 산문 여러 편을 가려 뽑아 엮었다. 권정생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문학작품의 바탕이 된 삶과 사상, 종교, 진솔한 이웃들의 이야기가 소박하게 서술되는 한편, 우리 삶의 근원을 비추어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글들이다. 풍요와 편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시대를 맑고 올곧은 정신으로 성찰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가진다.



아기너구리네 봄맞이

길벗어린이 | 송진현 그림 | 30쪽 | 11,000원 | 2001년 12월 발행
ISBN 9788986621891
소년조선일보 '제9차 어린이를 위한 좋은 책' 선정도서,
한겨레 2002 겨울방학 권장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먼 산 굴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너구리들. 잠에서 깨어 우는 막내둥이 때문에 언니, 오빠너구리도 잠들지 못하고 굴속을 나왔다. 밖은 아직도 한창 눈보라가 부는데……。 겨울잠에서 깬 너구리네 가족에게 봄은 어떻게 찾아올까? 생명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글과 따뜻한 연필화가 어우러져 봄을 기다리는 동심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그렸다.



아기소나무와 권정생 동화나라

웅진주니어 | 이형진 그림 | 83쪽 | 9,000원 | 2000년 6월 발행
ISBN 9788901059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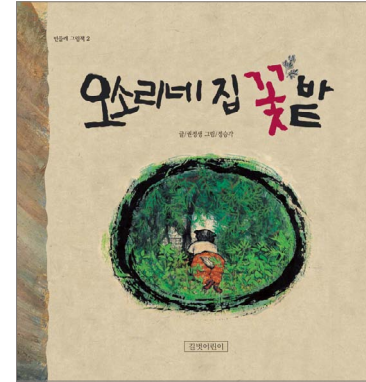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표 동화 작가인 권정생의 동화 네 편이 실렸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고마움을 노래한 〈소낙비〉, 이웃의 아픔을 순수한 동심으로 보듬은 〈아기 소나무〉, 죽음을 겪은 동심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금희와 아기 물총새〉,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두꺼비〉. 이 동화들은 가난한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엄마 까투리

낮은산 | 김세현 그림 | 44쪽 | 12,000원 | 2008년 5월 발행
ISBN 9788989646488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열린어린이〉 선정 좋은 그림책,
제5회 한국출판문화대상 일러스트 부문 수상작

불이 난 산에서 새끼들을 위해 희생한 엄마 까투리와, 살아남은 꿩 병아리들의 모습을 통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을 보여 주는 그림책으로, 우리 어린이문학의 별인 고(故) 권정생 선생이 남긴 유작 그림책이다.



오소리네 집 꽃밭

길벗어린이 | 정승각 그림 | 34쪽 | 11,000원 | 1997년 11월 발행
ISBN 9788986621334
서울특별시교육청 권장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한우리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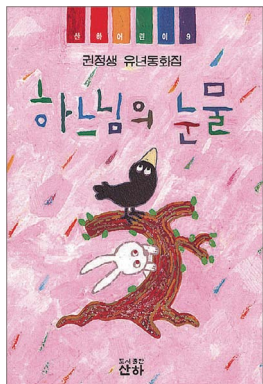
학교 울타리 사이로 예쁜 꽃밭을 들여다본 오소리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자기도 똑같이 꽃밭을 만들고 싶었다. 이곳저곳 꽃 심을 곳을 찾던 아주머니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쳐서 몰랐지만, 집 둘레가 온통 아름다운 들꽃들로 어우러진 예쁜 꽃밭이었다는 걸 말이다. 무심코 지나친 것들의 아름다움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 320쪽 | 14,000원 | 2008년 5월 발행
ISBN 9788990274427
환경정의 선정 '우리시대의 환경교전 18권'

아동문학가·사상이었던 권정생 선생이 황폐화 일로에 있는 이 시대의 삶의 밑바닥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슬픔과 분노, 연민의 마음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들. 온 우주가 교회이고 하느님인데 어떻게 폭력과 분단, 제국주의와 환경파괴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근본적 반문이다. "예수님이 지금 한국에 오신다면 십자가 대신 똥집을 지실지 모른다." 흙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가르친 사랑, '서로 섬기는 삶'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사는 삶이 인류의 미래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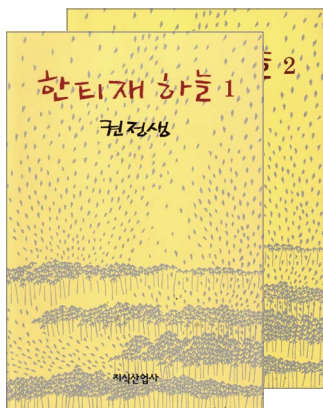
하느님의 눈물

산하 | 신혜원 그림 | 236쪽 | 7,500원 | 1991년 1월 발행

ISBN 9788976500083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책읽는교육사회실천협의회 좋은어린이책, 열린어린이 2003 겨울방학 권장도서

권정생 선생님의 주옥 같은 단편동화 17편이 담겨 있다.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늘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동물이나 나무 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어린이들에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정감 어린 동화들이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준다.



한티재 하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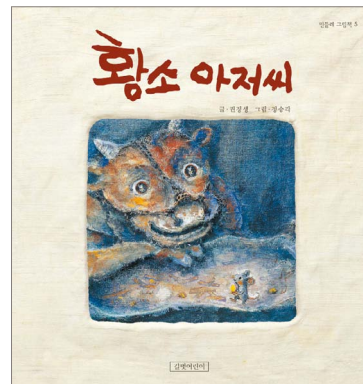
지식산업사 | 284, 298쪽 | 각 7,500원 | 1998년 11월 발행

ISBN 894237008X(1권), 8942370098(2권)

어린이도서연구회 2003 권장도서,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선정 2003 중학교 추천도서

한국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겨레가 헤쳐 온 가시덤불을 뜨거운 사랑과 끈질긴 생명력으로 뚫고, 온 하늘을 이고 나뭇대로 이쁘게 살다 죽어간 이름 없는 우리 민중들의 삶의 이야기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추한 것,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여 우리의 심금을 울리며 잔잔하게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황소 아저씨

길벗어린이 | 정승각 그림 | 32쪽 | 11,000원 | 2001년 1월 발행

ISBN 9788986621778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권장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열린어린이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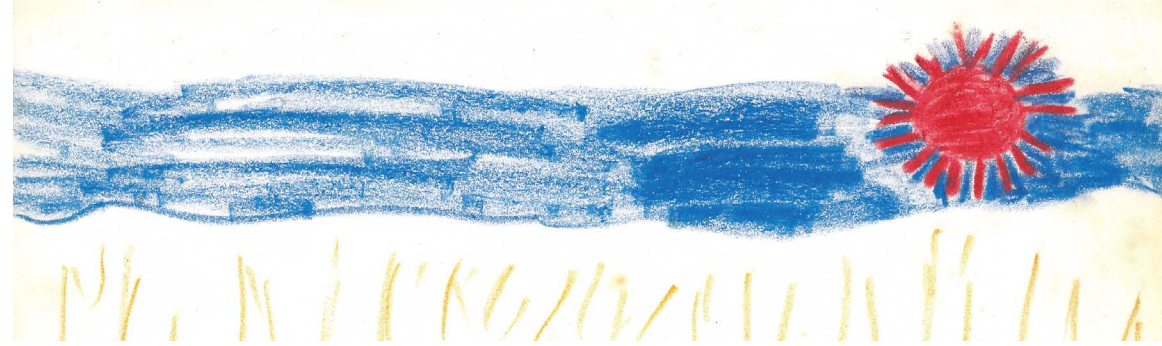
달빛이 은가루처럼 부서지던 보름날 밤, 산만큼 큰 황소 아저씨와 콩알만큼 작은 생쥐가 만났다. 생쥐는 어린 동생들에게 줄 먹이를 구하러 나온 참이었다. 엄마 잃은 가엾은 어린 생쥐들을 따뜻하게 돌봐 주는 황소 아저씨의 넉넉한 마음이 정겹기만 하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황소 아저씨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잘 살아나, 책을 보는 이들에게 그 행복함을 고스란히 전해 준다.



태양의 아이, 하이타니 겐지로



‘상냥함’을 태양처럼 품고 산 사람, 하이타니 겐지로



“너희가 모르는 곳에
갓가지 인생이 있다
너희 인생이
둘도 없이 소중한듯이
너희가 모르는 인생도
둘도 없이 소중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모르는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太
陽
の
子
谷
健
二
郎

하이타니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은 오직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내는 관계 안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의 이상은 결코 현실을 떠나 있지 않다.
작품 속 인물들은 그가 만났던 아이와 어른이다.
그들이 빚어내는 이야기에는
한없이 따뜻한 온기가 있고,
눈물과 미소가 따른다.



1. 전쟁과 가난(1934~1949)

“내가 어렸을 때 전쟁이 터졌다. 집이 부서져서 시골 친척 집 코딱지만 한 방 하나에 여섯 식구가 모여 살았다. 어린 시절 울보에다 소심한 아이여서 ‘목욕 거지’라고 놀림을 받으면 울음을 터트리곤 했다. 그래도 책 읽기를 좋아해서 모두가 장군이 되고 싶다고 할 때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1 다섯 살 때 식구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1949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장 여기저기에 입사 원서를 냈지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늘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다. 현실은 굴욕적이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는 더욱 비굴해졌다. 자립을 짓밟힌 인간의 절망감을 신물 나도록 맛보았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다. 공부만이 비참한 생활에서 나를 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절망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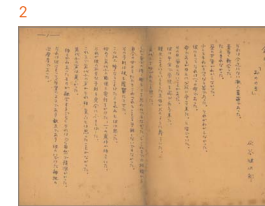
2 고등학교 때 사진

3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가난한 어린 시절 상냥함을 베풀어 준 사람을 떠올리며 쓴 책.

2. <기린>을 만나다(1950~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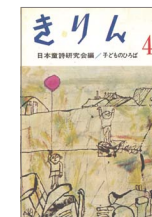
낮에는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에서는 은사인 야마모토 선생님의 영향으로 사회과학을 공부했고, <공산당 선언>을 읽었다.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사회과학 공부와 소설 습작을 했다. “그 시절, 나는 ‘교사가 되면 시간이 많아서 글을 쓸 수 있다’는 불순한 생각으로 교육 대학을 갔다.”



1 대학 입학 무렵 하이타니 겐지로.

2 1952년에 쓴 ‘전율’은 남아 있는 원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원고다.

“1955년 나는 소포를 하나 받았다. <기린> 잡지였다. 그 호에는 ‘나는 나쁜 짓을 했다’는 시가 실려 있었다. 글을 읽고 내 눈과 내 영혼, 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에 못 박혔다. 열한 살 된 어린이가 쓴 120매쯤 되는 글은 병든 내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1955년 9월 호는 무심코 급식비를 써 버린 아이가 쓴 시를 특집으로 실었다. 소년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도 한 번 지은 죄로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절망하고 절규한다. 그 방향의 모든 것이 시 속에 들어 있다. 하이타니는 ‘나는 나쁜 짓을 했다’는 “나를 구원해 준 성서였다”고 고백한다. <기린>을 통해서 아동문학에 첫 발을 단게 된 것이다.



<기린>, 간사이 지방을 중심으로 발행되던 어린이 시 잡지. 1948년부터 1971년까지 230호를 펴내고 폐간되었다.

3. 아이들에게 배우다(1956~1972)

“나는 내 연약한 성격을 알고 있던 터라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을 포기했고, 대신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자고 결심했다. 어린이 시 잡지 <기린>에 자극 받아 아이들에게 시 쓰기와 글쓰기를 하게 했다. 아이들이 쓰는 것을 괴로워하지만은 않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된 것 같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비로소 그의 인생은 풍요로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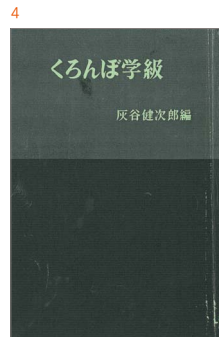
1 1956년 묘호지 초등학교 시절,
'깜둥이'라는 별명으로 아이들과 어울렸다.
2 1959년 히가시나다 초등학교 시절,
글쓰기와 그림 공부를 활발하게 했다.



“교육은 혼을 키우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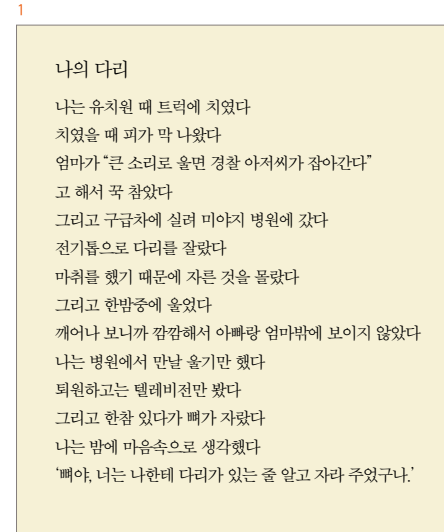
물건은 사용할수록 많아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지만,
교육으로 길러진 사람의 혼은 서로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살아갈수록 커져 가니까.”

3 '깜둥이 학급'이라는 이름으로,
<기린>에 글을 실었다.
4 <깜둥이 학급>, 아이들과 함께 만든 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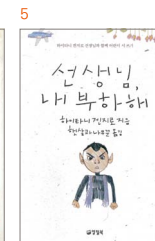


4. 아이들과 함께한 글쓰기

“아이들에게 배우려면 반드시 아이들을 믿는 마음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 내가 아이들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표현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배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17년 동안 교사로 살며 나는 아이들한테서 ‘저항과 상냥함’의 의미를 배웠다. ‘상냥함’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타인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은 아이들이었다.”



1 <선생님, 내 부하 해>에 실린 시(2학년 다카하시 사토루).
2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동화관에 하이타니 학급의 공동 작품이 전시되었다.
3-4-5 <선생님 내 부하 해> 1965년 초판본, 1977년 재판본, 한국어판. 아이들 시에 하이타니가 감상을 써서 펴낸 책이다.
“<선생님, 내 부하 해>는 나에게 그야말로 성서이자 내 정신의 책임입니다.
언젠가 내가 제대로 된 어린이문학 작품을 남긴다면, 그것은 모두 이 책에서 솟아나온 아름다운 영혼의 결정체 때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 <선생님, 내 부하 해>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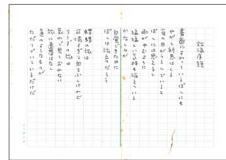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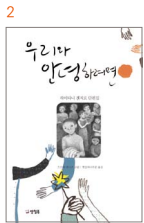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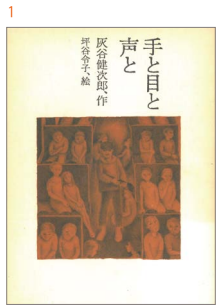
5. 생명의 섬, 오키나와(1972~1974)

“학교를 그만둡니다. 앞으로 그냥 평범한 아저씨로 살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2년에 가까운 방랑 생활로 가진 돈을 다 써 버렸다.
 폐가에서 잠을 자고 추위에 벌레처럼 웅크리고 잠을 잤다.”

‘토끼는 운하를 건너고 있었다’ 자필 원고와 손수 만든 시집.
 큰형의 죽음을 생각하며 쓴 시. 1967년 큰형의 자살은
 그가 평생 가슴에 지니고 산 아픔이었고 교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상냥함을 생각함으로써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지 모른다.
 오키나와를 생각할 때 항상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항상 오키나와가 있었다.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배우고도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교육 현장을 떠나
 오랜 방랑 생활을 한 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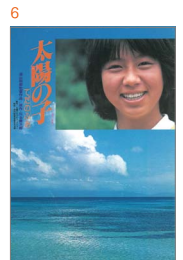
- 1·2 《손과 눈과 소리》는 《우리와 안녕하려면》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차별에 대한 저항을 주제로 한 단편 다섯 편이 실렸는데, 오키나와 이야기도 있다.
- 3 '방랑서실' 오키나와 방랑 시절의 심정을 담은 시.
 1974년 방랑을 끝내고 동인지 <수레바퀴> 38호에 글을 실고 76년 시집으로 펴냈다.
- 4 살아온 이야기, 아이들과 오키나와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에세이.



6.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오다(1974~1980)

“생각해 보면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심을 하게 해 준 오키나와여, 당신은 영원한 나의 은인이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만이 당신이 베푼 은혜의 1만분의 1이나마 갚을 수 있으리라.
 10년이 넘도록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그리고 그를 일본 대표 작가의 반열에 올린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와 《태양의 아이》가
 나왔다. 두 권의 책에는 작가가 살아왔던 ‘삶’과 인간에 대한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1·2 1974년 6월에 나온 일본 초판본과 한국어판 표지.
 일본어판 원제는 《토끼의 눈》이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는 하이타시가 살면서 만났던 아이들,
 고등학교 은사, 동료 교사, 오키나와 사람들 이야기를 쓴 책이다.
 “저항과 상냥함”,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 3·4 1978년 일본 초판본 표지와 한국어판 표지
 《태양의 아이》는 형의 죽음과 오키나와의 슬픔을 생각하며 쓴 책이다.
 “살아 있는 사람만의 세상이 아니야. 살아 있는 사람들 속에 죽은 사람도
 함께 살고 있어서 인간은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다, 후짱”.
 후짱에게 건네는 엄마의 말은 죽음과 슬픔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냥함’을
 간직하겠다는 하이타시의 낮은 다짐이었다.
- 5·6 《태양의 아이》 연극 대본, 영화 팸플릿



7. 섬에서 농사짓다(1980~1991)

“나의 인생에는 세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글을 계속 쓰는 일,

아이들과 계속 함께 살아가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노동으로 일해서 자급자족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



1 1980년 아와지 섬 집 서재에서

2



2 밭에서 농사짓는 모습



“섬의 산촌에서 혼자 살고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

이제 곧 배꽃이 피는데,

이제 곧 사과 꽃이 피는데, 왜?

하고 나는 늘 생각한다.”

아와지 섬에 이사해서 사는 가족 이야기를 쓴 책. 일본어판 원제는
《섬 이야기》다. 자신의 생활을 담은 책으로, 모두 다섯 권으로 나왔다.



8. ‘태양의 아이’ 유치원을 만들다(1983년)

“베스트셀러가 된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와 《태양의 아이》 인세 수입을 바탕으로 태양의
아이 유치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태양의 아이 유치원은 독자들이 지어 준 것이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어른 멋대로 디자인을 들이밀 것이 아니라, 되도록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담아, 골조는 콘크리트로
만들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돌과 흙과 나무로 지은 따뜻하고 정감 있는 건물이다.

1



2



1 ‘태양의 아이’ 유치원(1983)

2·3·4 유치원 풍경(2007)

5 《하이타니 겐지로의 유치원 일기》,
태양의 아이 유치원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한
2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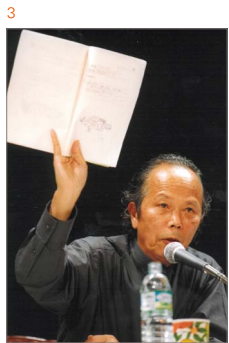
4



9. 마지막 16년(1991~2006)

아와지 섬에 다리가 놓이고 관광지로 개발되자 하이타니 겐지로는 오키나와에서 한 시간 떨어진 작은 섬 도카시키키로 이사한다. 바다를 사랑한 그는 잠수어업 자격증을 따서 어업협동조합에 생선을 대기도 했다.

이 시절 하이타니는 강연과 집필을 계속하면서 마라톤과 여행으로 자신에게도 충실했다. 2005년 한국의 독자들에게 강연을 하고, 그해 가을, 식도암과 췌장암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치료를 거부했다. 자신의 생명을 자연에 맡긴 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2006년 한국 독자들과 함께한 문학 기행 자리가 대중 앞에 선 마지막이었다. 집필 중이던 두 편의 원고, '하늘의 눈동자' 말라 버린 물고기'는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 1 집 앞 비둘기를 달리는 사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풀코스를 네 번이나 완주했다.
- 2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 3 한국 독자들에게 강연하는 모습(2005). 2006년 8월 문학 기행을 온 한국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차로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와서 밤늦도록 함께했다.
이것이 대중 앞에 선 마지막이 되었다.
- 4 '하늘의 눈동자'는 아홉 권을 쓰려고 했는데, 8권까지 나왔다.
한국에는 유년편 두 권이 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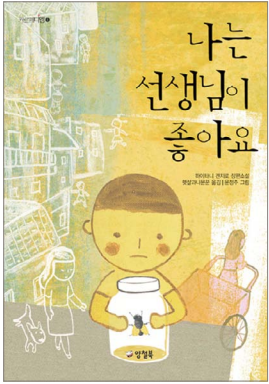
10. “배운 대로 살다 갑니다”(2006)

하이타니 겐지로의 삶은 ‘어린이’와 ‘문학’을 떼어 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의 인생은 “좀 더 인간적인 인간이 되는 길을 찾고 고민하며 살아온 배움”의 과정이다.

가깝게 지내던 분들께
아무래도 명이 다할 때가 가까워진 듯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 두려 합니다.
들판의 나비나 잠자리처럼 살다 죽고 싶습니다.
삶은 그렇지 못했지만 죽음은 자연에 맡기고 싶습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은 무집착의 사상,
다시 말해서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배워 온 그대로 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삶에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조금은 있을지도).
죽음을 무턱대고 멀리하지 않고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때로는 죽음도 축하할 일이라는 생각이 나는 더없이 좋습니다.
나의 단 한 가지 바람이라면, 머잖아 찾아올 나의 죽음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어떤 혹독한 현실에서든 자신과 타자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있으며 희망을 잃은 채 이 시간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발 먼저 갑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례식이나 추모회 등은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 저세상에서 만나 뵙지요. - (유서 가운데에서)

2006년 11월 23일, 하이타니는 그리운 큰형의 곁으로 떠났다.
유언에 따라 장례식은 하지 않았다.
한 줌 재가 되어, 그토록 사랑하던 바다에 뿌려졌다.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양철복 | 윤정주 그림 | 햇살과나무꾼 옮김 | 346쪽 | 9,000원
2008년 3월 발행 | ISBN 9788990220776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 책다세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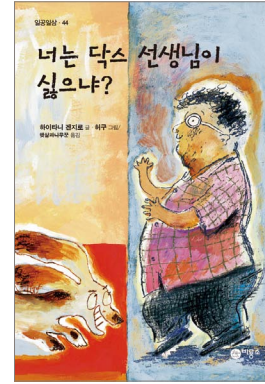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교육 철학이 담긴 하이타니 겐지로의 대표작. 파리를 기르는 게 유일한 관심사인 데쓰조와 문제아로 찍힌 쓰레기 처리장 아이들. 아이들과 고다니 담임 선생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울려 사는 방법을 깨닫는다. 한 줄 광고 문구도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에게 읽힌 스테디셀러.



내가 만난 아이들

양철복 | 햇살과나무꾼 옮김 | 222쪽 | 9,800원 | 2004년 5월 발행
ISBN 9788990220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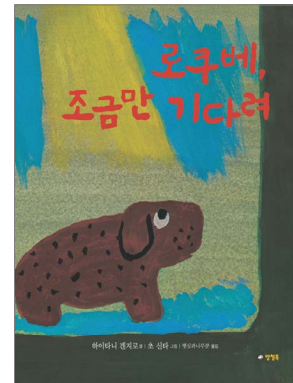
자신에게 절망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실천해 온 하이타니 겐지로의 삶의 기록이자 배움의 기록으로, 그의 인생철학과 사상의 뿌리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아이들과 오키나와 사람들을 통해 깨달은 인간의 낙천성과 상냥함, 그리고 생명의 의미에 대해 말한다. 그가 반평생을 반추하며 쓴 이 책에는 참다운 인간의 길을 가르쳐 준 사람들, 그리고 문학세계와 교육관의 바탕을 이룬 삶의 체험과 아이들에 대한 작가의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다.



너는 닥스 선생님이 싫으냐?

비룡소 | 허구 그림 | 햇살과나무꾼 옮김 | 102쪽 | 7,000원
2003년 11월 발행 | ISBN 9788949170695

작은 키에 뚱뚱한 몸매. 게다가 별명도 희한한 선생님. 다리가 짧아, 닥스훈트의 이름을 따서 '닥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괴짜 선생님네 반이 되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투덜댄다. “무슨 선생님이 저래?” 그러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 가는 과정이 익살스러우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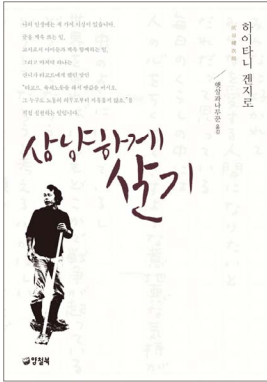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양철복 | 초 신타 그림 | 햇살과나무꾼 옮김 | 32쪽 | 8,500원
2006년 3월 발행 | ISBN 9788990220509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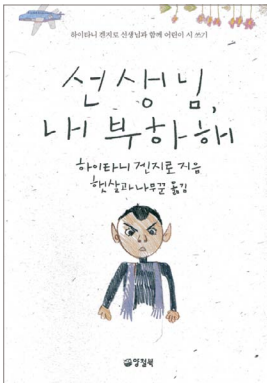
구덩이에 빠진 개, 로쿠베를 구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들의 소동이 따스하고 유쾌하게 펼쳐지는 그림책.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사를 보는 어른들과는 달리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아이들의 순박한 심성이 묻어난다. 곤경에 처한 로쿠베의 마음을 달래고 즐거움을 줄 방법을 찾는 아이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힘으로 로쿠베를 구해 내는 친구들의 재치 넘치는 활약과 애뜻한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상냥하게 살기

양철북 | 햇살과나무꾼 옮김 | 328쪽 | 12,000원 | 2015년 1월 발행
ISBN 9788963721262

17년간의 교사 생활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낙천성과 희망을 발견하고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일본의 대표 작가이자 교육 실천가 하이타니 겐지로가 세상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던 40대 무렵 발표한 64편의 글을 모은 산문집이다. 자급자족 생활을 위해 아와지 섬으로 이주한 작가가 초보 농사꾼으로 살며 겪은 웃기면서도 눈물 나는 갖가지 시행착오들, 우경화되는 정치와 점점 나빠지는 사회에 대한 우려, 오만해지는 인간을 경계하며 발표한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읽어 왔던 하이타니 겐지로의 삶과 생각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선생님, 내 부하해

양철북 | 햇살과나무꾼 옮김 | 232쪽 | 9,000원 | 2009년 12월 발행
ISBN 9788963720111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추천도서,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추천도서,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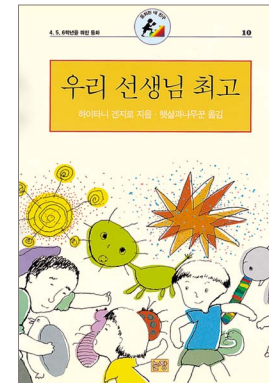
17년 동안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친 하이타니 겐지로의 어린이 시 쓰기 지도서. 아이들이 시를 생활 속에서 즐기며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책으로, 작가가 아이들에게서 배운 것, 아이들과 주고받은 마음이 담겨 있다. 작가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이 특유의 상상력으로 표현된 시들을 재치 있게 엮어 냈다.



소녀의 마음

양철북 | 햇살과나무꾼 옮김 | 272쪽 | 9,000원 | 2008년 9월 발행
ISBN 9788990220820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 책따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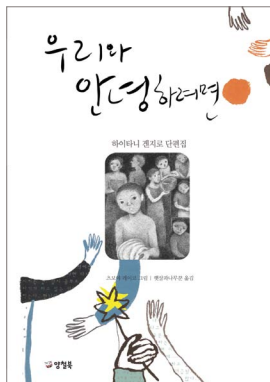
부모의 이혼을 불행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소녀 가스리는 아빠, 엄마, 남자 친구 우에노를 통해 진정으로 한 인간을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부모의 이혼으로 고민하고 흔들리며 성장해 가는 사춘기 소녀의 내면을 발랄한 대화체로 풀어내고 있다.



우리 선생님 최고

논장 | 햇살과나무꾼 옮김 | 208쪽 | 8,500원 | 1999년 1월 발행
ISBN 9788984140127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책따세 추천도서, 책읽는교육사회실천협의회 추천도서

출랑공주, 따따부따 등 웃기는 별명 짓기의 명수들인 4학년 3반 아이들은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 온다. 화가 나면 "에잇, 이 똥싸개야!" 하고 호통을 치는 신바람 똥싸개 선생님 때문이다. 그런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은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란 없다는 것,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고민에 정면으로 맞서야만이 한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체득한다. 사제 간과 친구 간의 진정한 우정과 연대, 진지한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는 문제작이다.



우리와 안녕하려면

양철북 | 츠보야 레이코 그림 | 햇살과나무꾼 옮김 | 208쪽 | 9,800원
2007년 12월 발행 | ISBN 9788990220738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재일동포의 설움을 담은 〈물 이야기〉,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며 침략 전쟁을 일삼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흔적을 더듬으며 쓴 〈눈〉, 언어 장애를 지닌 특수반을 맡은 교사의 눈을 통해 아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리〉 등 5편의 단편을 모았다. 작가가 추구하는 생명의 본성인 '상냥함'이 짙게 배어 있는 작품이다.



태양의 아이

양철북 | 오석운 옮김 | 400쪽 | 9,800원 | 2008년 5월 발행
ISBN 9788990220790

책따세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묻는 성장소설. 후짱은 아버지가 마음의 병을 앓는 것, 테다노후아 오키나와정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에 깊은 슬픔을 묻고 사는 것이 ‘오키나와의 비극’ 때문임을 알게 된다. 후짱은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잔혹한 전쟁을 마주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와 진실’ 앞에서 비겁하게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어린 후짱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가족과 이웃들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있는 공동체적 연대감과 연민의 정 때문이다.

✧ 이오덕

1. 감자를 먹으며 낮은산 | 8,500원 | 2004년
2. 거꾸로 사는 재미 산처럼 | 10,000원 | 2005년
3. 교사와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고인돌 | 15,000원 | 2011년
4. 글쓰기 교육 이론과 방법 고인돌 | 20,000원 | 2012년
5.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보리 | 11,000원 | 2009년
6. 나무처럼 산처럼 1,2 산처럼 | 각 8,000원 | 2002년
7. 내가 무슨 선생 노릇을 했다고 삼인 | 12,000원 | 2005년
8.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 한길사 | 15,000원 | 2001년
9. 동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 삼인 | 15,000원 | 2011년
10. 무너미마을 느티나무 아래서 한길사 | 9,000원 | 2005년
11. 무엇을 어떻게 쓸까 보리 | 8,500원 | 2007년
12. 민주교육으로 가는 길 고인돌 | 13,000원 | 2010년
13. 바른말 바른글 고인돌 | 20,000원 | 2015년
14. 백의민족이 왜 붉은 악마가 되었는가? 고인돌 | 15,000원 | 2014년
15. 삶·문학·교육 고인돌 | 20,000원 | 2013년
16. 삶과 믿음의 교실 고인돌 | 15,000원 | 2012년
17.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보리 | 15,000원 | 2004년
18. 삶을 가꾸는 어린이 문학 고인돌 | 18,000원 | 2010년
19. 시정신과 유희정신 굴렁쇠 | 20,000원 | 2005년
20. 신나는 글쓰기 지식산업사 | 7,000원 | 2006년
21. 아동시론 굴렁쇠 | 14,000원 | 2006년
22. 애들아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라 고인돌 | 9,000원 | 2013년
23. 어린이 시 이야기 열두마당 지식산업사 | 6,000원 | 2001년
24. 어린이를 살리는 글쓰기 우리교육 | 7,000원 | 1996년
25. 어린이책 이야기 한길사 | 13,000원 | 2002년
26.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글 고인돌 | 12,000원 | 2010년

27. 우리 글 바로 쓰기 세트 (전5권) 한길사 | 90,000원 | 2009년
28. 우리 모두 시를 써요 지식산업사 | 6,000원 | 1993년
29. 우리 문장 쓰기 한길사 | 20,000원 | 2000년
30. 우리말로 살려놓은 헌법 고인돌 | 12,000원 | 2013년
31. 울면서 하는 숙제 산하 | 6,000원 | 1990년
32. 이오덕 글 이야기 산하 | 6,000원 | 1994년
33. 이오덕 유고 시집 고인돌 | 30,000원 | 2011년
34. 이오덕 일기 세트 (전5권) 양철북 | 70,000원 | 2013년
35. 일하는 아이들 보리 | 11,000원 | 2002년
36. 종달새 우는 아침 굴렁쇠 | 8,500원 | 2007년
37. 하느님 물건을 파는 참새 고인돌 | 12,000원 | 2012년
38. 흰둥이와 검둥이 산하 | 6,000원 | 1995년

✽ 권정생

1.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 11,000원 | 1996년
2. 강아지와 염소 새끼 창비 | 12,000원 | 2014년
3. 곰이와 오펜돌이 아저씨 보리 | 12,000원 | 2007년
4. 길아저씨 손아저씨 국민서관 | 10,000원 | 2006년
5. 감동바가지 아줌마 우리교육 | 7,000원 | 1998년
6. 꼬부랑 할머니 한울림어린이 | 10,000원 | 2008년
7. 꽃밭: 보리 어린이 노래마을 05 보리 | 22,000원 | 2003년
8. 나만 알래 문학동네어린이 | 9,500원 | 2012년
9. 내가 살던 고향은 웅진주니어 | 7,000원 | 1996년
10. 늦가을 소나무와 굴뚝새 여우오줌 | 10,000원 | 2002년
11. 땃발 늘어져라 한겨레아이들 | 8,000원 | 2009년
12. 동시 삼베 치마 문학동네어린이 | 14,800원 | 2011년
13.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우리교육 | 8,000원 | 2000년
14. 똑똑한 양반 한겨레아이들 | 8,000원 | 2009년
15. 랑랑별 때때롱 보리 | 12,000원 | 2008년
16. 먹구렁이 기차 우리교육 | 7,000원 | 1999년

17. 몽실 언니 창비 | 10,000원 | 2012년
18. 물렁감 우리교육 | 6,000원 | 2011년
19. 바닷가 아이들 창비 | 9,800원 | 2001년
20. 바보처럼 착하게 서 있는 우리 집: 권정생 노래상자 보리 | 28,000원 | 2010년
21. 밥데기 죽데기 바오로딸 | 7,500원 | 2004년
22. 별똥별 창비 | 10,000원 | 2013년
23. 비나리 달이네 집 낮은산 | 8,500원 | 2001년
24. 빌뱅이 언덕 창비 | 13,000원 | 2012년
25. 사과나무밭 달님 창비 | 8,500원 | 2006년
26. 슬픈 나막신 우리교육 | 8,000원 | 2002년
27. 아기 늑대 세 남매 산하 | 9,000원 | 2010년
28. 아기 소나무 산하 | 9,000원 | 2010년
29. 아기 토끼와 채송화 꽃 창비 | 9,000원 | 2012년
30. 아기너구리네 봄맞이 길벗어린이 | 11,000원 | 2001년
31. 아기소나무와 권정생 동화나라 웅진주니어 | 9,000원 | 2006년
32. 아름다운 까마귀 나라 산하 | 9,000원 | 2010년
33.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지식산업사 | 6,000원 | 2000년
34. 엄마 까투리 낮은산 | 12,000원 | 2008년
35. 오소리네 집 꽃밭 길벗어린이 | 11,000원 | 2000년
36. 용구 삼촌 산하 | 9,500원 | 2009년
37. 우리들의 하느님 녹색평론사 | 14,000원 | 2008년
38. 점득이네 창비 | 10,000원 | 2012년
39. 짱구네 고추밭 소동 웅진주니어 | 7,000원 | 2002년
40. 초가집이 있던 마을 분도출판사 | 10,000원 | 2007년
41. 팔푼돌이네 삼형제 현암사 | 13,800원 | 2014년
42. 하느님의 눈물 산하 | 7,500원 | 1998년
43.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산하 | 7,500원 | 2000년
44. 학교놀이 산하 | 9,000원 | 2010년
45. 한티재 하늘 1,2 지식산업사 | 7,500원 | 1999년
46. 황소 아저씨 길벗어린이 | 11,000원 | 2001년
47. 훨훨 간다 국민서관 | 10,000원 | 2003년



✧ 하이타니 겐지로

1. 나, 이제 외톨이와 안녕할지 몰라요 사계절 | 7,500원 | 1998년
2.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양철북 | 9,000원 | 2008년
3.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양장) 양철북 | 10,000원 | 2010년
4. 내가 만난 아이들 양철북 | 9,800원 | 2007년
5. 너는 닥스 선생님이 싫으냐? 비룡소 | 7,000원 | 2003년
6.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양철북 | 8,500원 | 2006년
7. 맨발로 달려라 양철북 | 8,000원 | 2005년
8. 모두 다 생명이에요 양철북 | 8,000원 | 2005년
9. 모래밭 아이들 양철북 | 9,500원 | 2008년
10. 바다는 눈물이 필요 없다 비룡소 | 7,000원 | 2003년
11. 바다의 노래 논장 | 9,500원 | 2011년
12. 바다의 풍경 1,2 양철북 | 각 8,700원 | 2007년
13. 상냥하게 살기 양철북 | 12,000원 | 2015년
14. 생명은 서로 기대어 살지요 양철북 | 8,000원 | 2005년
15. 선생님, 내 부하 해 양철북 | 9,000원 | 2009년
16. 소녀의 마음 양철북 | 9,000원 | 2008년
17. 악동들의 주머니 양철북 | 8,000원 | 2006년
18. 외톨이 동물원 비룡소 | 7,500원 | 2003년
19. 우리 가족, 시골로 간다 양철북 | 8,000원 | 2004년
20. 우리 선생님 최고 논장 | 8,500원 | 1999년
21. 우리 집 가출쟁이 양철북 | 8,500원 | 2009년
22. 우리와 안녕하려면 양철북 | 9,800원 | 2007년
23. 큰고추 작은고추 양철북 | 9,000원 | 2009년
24. 태양의 아이 양철북 | 9,800원 | 2008년
25. 하늘의 눈동자 : 유년편 1,2 양철북 | 각 8,500원 | 2005년
26. 하늘이 나뉘 준 선물 양철북 | 8,000원 | 2005년
27. 하이타니 겐지로의 유치원 일기 양철북 | 10,000원 | 2010년

* 저자가 엮은 책, 공동 작품, 저자에 대해 쓴 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책을 다시 출판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을 실었습니다.



“아이처럼 살다”

이오덕·권정생·하이타니 겐지로의 따뜻한 만남

●특별 전시회●

2015. 5. 6-5. 31

서울도서관 1층 전시실과 계단, 4층 로비

평일 9시-21시/주말 9시-18시(월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참여 행사■

내가 쓰는 이오덕·하이타니 겐지로 책

《나는 땅이 될 것이다-한 권으로 읽는 이오덕 일기》《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따라 쓰기

* 천 명의 독자가 이오덕, 하이타니 겐지로의 책을 만들어 두 분 재단에 선물로 드리는 행사입니다.
참가하신 독자들에게는 전자책으로 만들어 한 권씩 선물로 드립니다.

주최 : 이오덕학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하이타니겐지로사무소 서울도서관

주관 : 길벗어린이 양철북 창비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후원 :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국국어교사모임 초등국어교사모임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교사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전국학교도서관당교사모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문화협의회 어린이문화진흥회 (사)행복한아침독서 학교도서관저널 에듀넷

●강연과 이야기 마당 안내●

[강연회]

이오덕·권정생·하이타니 겐지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시간 매회 저녁 7:00~9:00 (2시간)

회차	일시	강연 제목	강연자
1회	5월 6일(수)	하이타니 겐지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기시모토 신이치
2회	5월 13일(수)	이오덕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송희
3회	5월 20일(수)	권정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기영

장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참여 신청 : 서울도서관(<http://lib.seoul.go.kr>)이나 어린이도서연구회(<http://www.childbook.org>),
전화(02-2133-0245)

주최 : 이오덕학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하이타니겐지로사무소 서울도서관

[이야기 마당]

2015 이오덕·권정생·하이타니 겐지로 특별전 ‘아이처럼 살다’ 기념 이야기 마당

일시 : 2015년 5월 30일(토) 오후 2시~5시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 강당

사회 : 여울환

발표 : 강무홍 강정아 김중철 탁동철 (가나다 순)

참여 신청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cy.go.kr>, 전화(02-3142-4773)

주최 : 이오덕학교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하이타니겐지로사무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관 : 길벗어린이 양철북 참비 (사)어린이도서연구회

후원 :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국국어교사모임 초등국어교사모임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교사들 한글글쓰기교육연구회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문학협의회 어린이문화진흥회
(사)행복한아침독서 학교도서관저널 에듀니티